

“수행자 본분 지킴이 종단 위상 회복”

태고청규

- 분소의(糞掃衣) 정신에 입각해 전통의제에 맞는 복식을 착용하고 법계에 맞는 법복 착용을 의무화 한다.
- 수행가공 진작을 위해 태고총림 안거에 동참하고 개사찰별 단기결제를 의무화 한다.
- 조석예불시 향수해례 봉행을 준수하여 전통종단의 면모를 일신하고 매월, 포살과 자자를 정리화 한다.
- 승가의 본분에 위배되는 오락성, 사행성, 호화성 행위를 금지하고 청빈한 수행풍토를 의무화 한다.
- 매월 1승려 1선행으로 대승교화정신에 입각한 대사회 복지에 기여한다.



태고종 구랍 27~28일 선암사에서 종단 사상 최초로 태고산림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구랍 27~28일 ‘태고산림법회’ 철야정진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이 청규를 만들어 발표하는 등 종단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태고종은 구랍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종단 창종 이래 최초로 5개조항의 청규를 마련하는 등 ‘태고산림법회’를 성공리에 봉행했다. 특히 이 자리는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도산 스님, 중앙총회의장 혜공 스님과 총무원의 각 부장, 중앙총회의원, 전국 시도교구총무원장, 전국비구니회, 전국전 법사교인회 등 종단 간부스님들과 단체장 등 종단의 주요 요직 인사 1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한 대중들은 철야정진을 하고 5개 항의 ‘태고청규’를 한

목소리로 낭독했다. 태고청규는 조석예불과 의제착용 및 개사찰별 단기결제, 청빈한 수행풍토를 의무화 하고, 자자와 포살을 정리화하며, 매월 1승려 1선행을 통해 봉사활동을 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태고종은 앞으로 종도들이 ‘태고청규’를 자발적으로 지켜나가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구랍 27일 오후 7시 입재식으로 문을 연 ‘태고산림법회’는 다음날인 28일 새벽 3시까지 천수다라니 108독과 108 참회, 이산해연 선사 발원문 봉독 등으로 이어졌다. 회향식에서 종정 혜초 스님은 법문을 통

단기 결제·포살 자자 청빈·수행작 의무화 자비행 등 ‘청규’ 발표

해 “종단 집행부를 포함한 종단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총림에 함께 모여 철야정진으로 새해를 맞는 것을 보니 그 공덕으로 종단이 새롭게 활성화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면서 “종도들은 계율을 잘 지켜 삼독을 끊고 삼학을 잘 닦아 승가 본분을 지키고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고청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태고산림법회를 개최한 가장 큰 의미는 ‘상구보리 하

회중생’이라는 수행자 본분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보다 수행자가 수행자답게 생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실추된 승가의 위상을 높이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한다”며 한국불교계가 쇠신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청규는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취지이다. 이번 제정된 청규를 통해 승속의 경계를 엄중히 하고 삭발염의했던 초발심으로 돌아가 우리 종단의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는 발판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경북 불교문화재

50% 도난·파괴

우리문화재찾기 조사 결과 발표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는 경북도 내 석탑 136기와 석불 64체 등 200개에 대해 최근 2년여 동안 조사한 결과 46.5%인 93개가 도난당해 행방불명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석탑은 도난당해 행방불명된 것이 32기, 파괴된 일부 탑의 석재가 없는 것이 34기로 조사됐다. 석탑 중 완전히 원래 위치에 보존(복원 포함)된 것은 23기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그 자리 일대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불은 도난당해 행방불명된 것이 13체, 일부 파손된 것이 14체이며, 원래 위치에 그대로 보존된 것은 7체뿐이었다. 우리문화재찾기는 “1916~1917년 일제가 학술조사 명목으로 작성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석탑·석불 183건과 지역 향토사료지의 내용을 대조해 추적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올해 본사·총회의원 선거 잇달아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에 이어 올해에도 조계종은 적지 않은 선거가 열린다. 주지 스님이 교체되는 교구본사만 5곳이며, 중앙총회의원 선거도 보궐을 포함해 2차례 열릴 예정이다. 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는 2교구 용주사와 11교구 불국사, 16교구 고운사에서 각각 열린다. 9교구 동화사와 13교구 쌍계사도 총림 지정 이후 첫 주지 선출을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본사 주지 선출 산중총회가 열리는 곳은 제2교구본사 용주사다. 제2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호)는 오는 1월 27일 오후 1시 용주사에서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주지 후보 입후보자는 법계 종덕 이상, 연령 70세 미만의 비구로서 △2년 이상 재직된 중앙총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 △8년 이상 재직된 말사 주지 △4년 이상 재직된 중앙총회의원 △4년 이상 재직된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 △전문선원에



조계종 제15대 중앙총회의원 선거에서 스님이 투표를 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용주사·불국사 등 5곳 주지 선출위한 산중총회 10월 총회의원 선거도

서 20만여 이상 성만 △10년 이상 재직된 강원·울원 교직자 중에서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주지 후보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서와 이력서, 경력 또는 안거 증명서류 등 구비서

료를 갖춰 오는 1월 15일부터 17일 오후5시까지 2교구 선거관리위원회(용주사 종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거주승 신고는 1일부터 7일까지며, 구성원 명부 열람은 18일부터 20일까지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5월 주지 성문 스님의 임기가 만료되며, 총림법에 따라 팔공총림 방장 진제스님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된다. 쌍계총림 쌍계사는 12월 주지 성조스님의 임기를 앞두고 있다. 쌍계총림 방장 고산스님의 낙점에 따라 차기 주지가 결정된다. 이밖에도 고운사는 9월, 불국사는 10월에 현 주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를 선출하기 위한 산중총회가 열린다. 중앙총회의원 선거도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다. 15대 보궐선거가 2월 27일과 8월 28일 예정되고, 10월 16일 16대 중앙총회의원 총선거가 전국 교구에서 일제히 열린다. 2월 열리는 보궐선거는 마곡사 1명, 직능대표 1명 등 2석의 중앙총회의원을 결정한다. **신종일 기자**

“애국·생활·대중불교 지표를 실현하자”

천태종, 상월대조사 102주년 탄신법요 성료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신 102주년 봉축법요식이 구랍 30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요식은 종정 도용스님의 현향한다 현화로 시작해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상단권공 및 종사영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봉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대조사님 탄신의 의미를 기리고 되새기는 것은 대조사님의 무진법문을 주경야선의 종풍으로 받들고 애국·생활·대중불교의 지표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서원”이라며 “천태종 250만 불자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조사님의 길을 따라 갈 것이며, 대조사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이라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심장섭 총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참되고 밝은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정화에 노

력해온 천태종이 대조사님의 원융화합의 가르침을 더 크게 일궈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보화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민족의 큰 혼란기를 거치면서 상월원각대조사께서는 구인사를 중심으로 헌신적인 불법홍포를 이어갔다”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를 견인하며 종교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천태종의 주경야선 풍토가 앞으로도 단단한 정진력으로 승화되어 지혜와 자비가 원만한 세상을 구현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요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를 비롯한 불교계 종단 지도자와 이현승 국회의원, 심장섭 문화체육관광부 총무실장, 신진선 충북도 행정부지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김동성 단양군수 등 정계 인사와 지역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신 102주년 봉축법요식이 30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했다.

청소년·임산부 인성 함양 사찰에서

목동 국제선센터, 1월 영어, 태고 템플스테이 연이어 개최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영어가 가능한 중고생 20명을 대상으로 1월 11일(토)~12일(일) 1박 2일간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 (ISC Teen’s Templestay)’와 1월 8일, 15일, 22일 사흘간 ‘임산부를 위한 태고 데일리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의 지도법사는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천조스님이며, 김창민 서울시립대 전자공학과 교수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지낸 Ralph Baldassare 등이 강사를 맡아 청소년을 지도한다. 또한 브라질 국적의 서울대 교환학생 및 국제선센터 청년회원들이 간사로서 템플스테이 진행과 생활 지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는 ‘자신감 및 성취감 고취’ ‘지아찾기’ ‘불교수행’ ‘조

화롭게 살기’ 등 네 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 ‘법과 마음 나눔(Dharma Sharing)’ 스님의 명함 만들기 스나에게 일주일의 주어진다면 △ 주제로(인생그래프, 나쁜 비우고 소망 채우기) △ 발소리 느껴보기 △ 숨소리 느껴보기 △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을 다져주는 영문 108배 등이 있다. 또한 국제선센터에서는 집에서 멀리 떠나기 어려운 임산부를 위한 3주 코스의 태고 데일리 템플스테이를 기획했다. 태아와 산모를 위한 건강한 사찰음식을 먹으며 산모들이 수행을 통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배우고 체험하게 된다. 임산부를 위한 태고 템플스테이는 매일 진행되며, 2차는 3월에 할 예정이다. 2차는 산모의 건강관리법과 태아를 위한 불교적 교육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 불교 원효종

갑오년 새해 종도 여러분 소원성취 기원합니다.

불기 2558년 시무식과 2557년 결산 심의, 2558년 예산편성 결정을 함에 총회회의를 개최하오니 중앙총회 의원님들의 참석 당부 드립니다.

중앙총회의원

총 회 의 장 원봉(이동림)

총 회 부 의 장 진혁(최광식), 명관(설희생)

법 규 원 장 지호(최병택)

총회사무총장 진산(박병철)

법규의원 지상(박정명), 운영(안영자), 상경(김종술)

총회의원 운하(이성식), 옥운(김옥자), 도명(김희곤), 운오(신찬오)

중앙총회의원 총회회의

- 일 시 : 불기 2558(2014)년 1월 9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총무원 울산주소 - 하단주소 참조
- ※ 각 교구장 스님은 도장 필 지참할 것.
- 신년 법 어 : 벽송 큰스님, 정광 큰스님
- 집행위원장 : 해담 큰스님, 운오 큰스님

불기 2558(2014)년 1월 2일

대한불교원효종 총회회의장 원봉 합장

-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601호 / 전화 02)735-0501, 팩스 02)736-3509
- 울산사무소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 전화 052)262-6857, 팩스 052)263-0501